

일상에 녹아든 비대면·미니멀 라이프

1인 가구 증가에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 맞물려 미니 수박·소형 안마기·소형 가전 등 매출 급성장 광주·순천 등에 무인카페 매장·국수 만드는 셰프봇 등장 북구 '광주형 비대면 기사 차량 서비스' 시범적 운영도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가 맞물리면서 지역 유통가에도 최소한 소비하는 '미니멀(Minimal) 생활'과 비대면 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4개 이마트에 따르면 6월1~17일 '미니 수박'이라 불리는 5kg 미만 수박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7% 뛰었다.

혼자 사는 소비자에 맞춰 내놓은 소형 안마기 매출은 138% 올랐고, 조각과일(39%), 소형 가전(29%)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 통, 묶음, 박스 단위로 구매하던 과일 소비경향이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20~30대를 중심으로 집에서 가볍게 식사대용이나 디저트로 활용하는 트렌드로 변모하고 있다"며 "600g 안팎인 '나혼자 수박' 등 '편의과일' 비중을 늘리고 자체 소형 안마기를 출시하는 등 대용량 상품권 취급하던 대형마트 관행을

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식업계는 종업원과 직접 마주치지 않고 소비하길 원하는 20~30대 수요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음료 주문부터 결제,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카페'가 광주 북구 운암동과 순천, 광양 등지에 생겨나고 있다. 카페를 내는 데 필요한 매장 면적도 최소 3평(9.9㎡) 이상이라 인건비 부담 없이 소자본 장업을 원하는 이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기술력과 자본을 엮은 대형 유통업체도 무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빙스에 직접 국수를 만드는 'LG 클로이 셰프봇'을 도입했다. 지난달 빙스 광주 광전점도 셰프봇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광주·전남지역 대형마트 3사는 24개 점포의 절반이 넘는 15곳에 고객 스스로 결제하는 '셀프(Self) 계산대'를 도입한 상



광주시 북구 운암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고객이 음료를 주문·결제하는 모습.

순천점 등 7곳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마트는 수완·월드컵·첨단 등 3개 점포에 셀프 계산대를 들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의 하나로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여행·관광 서비스도 지역에서 첫선을 보였다.

지난 5월 말 광주시 북구와 모빌리티 스타트업 '무브'는 '광주형 비대면 기사 차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객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 동선을 확인하고 상황과 목적에 따라 메시지로 기사와 소통하게 된다. 두 기관은 인공지능형 빅데이터로 관광 자료를 수집해 광주 관광지도를 개발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지역 평균 가구원 수는 광주 2.45명, 전남 2.28명으로 조사됐다.

전남 평균 가구원 수는 경북·강원과 함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광주는 경기(2.58명), 인천(2.55명), 울산(2.53명), 세종(2.5명), 제주(2.49명), 대구(2.46명)에 이어 7번째를 차지했다. 광주·전남지역 1인 가구는 42만명(광주 18만2000명·전남 23만8000명)으로, 전체 가구(132만1000명)의 31.8%를 차지했다. 지역 1인 가구 비중은 매해 높아지는 추세다.

이마트는 지난 2018년 7월 동광주점을 시작으로 봉선·상무·광주점과 목포·여수·

'농업인안전보험' 본인 부담 비율 광주 21%·전남 20.5% 가장 높다

고령층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율이 광주·전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 방안'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본인 부담 비율은 광주 21%·전남 20.5%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본인 부담 비율은 전국 평균 12.5%를 크게 웃돌았다. 본인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4.3%), 서울(6.3%), 부산·대구(각 6.8%) 등이었다.

농업인안전보험료 국고 지원 비율은 각 시도가 47.3%에서 49.8%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사·도 지원' 또는 '사·군·구·지원'에서 편차를 보였다.

광주와 전남은 사·도 지원 비율이 '0%'였고 사·군·구 지원은 전남은 '0%', 광주 18.8%로 나타났다.

농협 자체 지원 비율을 보면 광주는 30%로 서울(46%), 인천(34.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 높았다. 전남은 11.8%로, 전북(9.1%), 경기(10%)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 조건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이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출시 삼성전자는 18일 77리 색상 패널을 적용한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를 출시했다. 3~5인 가구에 적합한 12인용 제품으로, 싱크대나 가구장에 설치하는 '빌트인'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리스탠딩' 타입 경용으로 출시됐다. 출고가는 144만~149만원이다. <삼성전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33.48 (-7.57)	↓ 금리(국고채 3년) 0.842 (-0.032)
↑ 코스닥 737.33 (+1.93)	↓ 환율(USD) 1208.00 (-5.90)



'힐스테이트 광산' 428세대 분양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 주변 개발호재로 가치 높아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420-10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산'을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광산은 지하 2층, 지상 10층~14층, 12개동, 전용면적 84㎡ 425세대와 116㎡ 3세대 등 총 428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218세대 ▲84㎡B 207세대 ▲116㎡A 2세대 ▲116㎡B 1세대다.

단지 주변에는 개발호재가 예정돼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선 남서측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이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북서측으로는 공동·단독주택 3000여세대를 비롯한 공원·학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조성되는 선운2지구(2024년 완료) 택지개발도 예정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광주송정역 인근 59만5000여㎡ 부지를 산업·업무·주거·상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2025년 완공)도 계획돼 있다.

송정역을 통해 2시간 이내 수도권에 갈 수 있고, 제2순환고속도로, 무안·광주 고속도로, 13번 국도 등 광역이동과 상무

대로를 통한 시내이동도 편리하다. 송정중, 정광중, 정광고 등도 반경 1km 내에 위치해 교육여건도 양호하다. 또 전 세대가 남향(남동·남서) 위주로 배치되고, 선호도가 높은 84㎡가 전체 99% 이상을 차지해 실수요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84㎡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로 맞춤형이 가능해 환기가 용이하고, 안방 넓은 드레스룸으로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현관과 주방 사이 팬트리도 설치돼 공간 활용성을 높였고, 타워형 구조인 84㎡B 타입은 복도수납장도 제공된다.

분양 관계자는 "광주 교통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는 광산구 신규 중심축에 들어서고 주변 개발호재로 생활·주거환경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힐스테이트 브랜드의 새 아파트로 조성돼 미래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주택은 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513에 6월 중 개관 예정이다. 문의 1577-0926.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서비스' 확대

광주본부세관은 광주 소재 업체에게만 제공되던 '관세납부기한 만료일 알림서비스'를 관역 내 전체 업체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5월부터 광주 소재 월별납부업체를 대상으로 관세납부기한 만료 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동안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돼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당 서

비스 시행 이후 체납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이를 관내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는 광주를 비롯한 광양·목포·여수·대전·군산·제주·전주 등 관역 관할 업체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한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체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